

‘가족살해 모티프’와 가족 공동체의 붕괴  
-1930년대 염상섭 장편을 중심으로

김학균  
(서울산업대 ○○과)

1. 서론

1930년대를 전후로 한 시기에 염상섭은 장편소설 창작의 황금기를 맞이한다. 『삼대』(1931)를 비롯하여, 『사랑과 죄』(1928), 『이심』(1929), 『광분』(1930), 『무화과』(1932) 등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 이 시기에 쓰였다. 염상섭 소설 연구 또한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염상섭 소설의 기본 구조를 혼사장애 모티프로 파악하고, 그의 소설을 남녀 결연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연구는(김경수 1999) 염상섭 소설의 서사 구조를 밝히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염상섭 소설의 다양성을 밝히지 못했다. 염상섭 소설에서 두 남녀의 연애가 장애들을 극복하고 혼인에 이르거나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은 그의 소설의 최종목표라기보다는 서사를 진행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이다. 그의 소설은 연애가 성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연애에서 어떤 장애들이 발생하느냐, 이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곳에서 연애가 진행되느냐가 중요하다. 이와 같이 염상섭 소설은 결말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염상섭 소설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연인들이 결합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고,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남녀의 사랑을 성사시키는 조건들이 곧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의 소설의 핵심에 도달하는 방법은 이 방해요소들을 찾아내는 데에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관심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나는 남녀 결연의 과정에서 이들이 부딪치는 갈등이 무엇이며, 이 갈등이 일어난 배경들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글은 『광분』을 기점으로 해서 『삼대』와 『무화과』에 이르는 염상섭의 중기 장편소설을 가족사 소설로 분류한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김승환 1983) 염상섭 소설은 가족사를 중심으로 틀이 잡히면서 안정적인 문체를 보인다고 김승환은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가족사 중심의 서사에서 안정감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는 긍정적인 의미만을 내포하는 것은 아닌 듯 하다. 왜냐하면 『삼대』 이후로 염상섭의 가족사 소설은 거의 비슷한 플롯을 반복하면서 1936년 『불연속선』에 이르기까지 질적인 면에서는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염상섭 중기 소설을 가족사 소설로 분류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가족사 소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염상섭의 가족사 소설은 역설적으로 가족 공동체의 해체과정을 포착하면서 화폐 경제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경쟁과 근대적 경제 체제의 속물적 성격을 폭로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속물성은 화폐 경제구조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김승환은 짐멜의 이론에 기대어 화폐가 주인공의 내면에 작용하는 과정을 포착하여, 돈이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변형시켰다고 주장한다.(김승환 1983:112-130) 최혜실도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자유연애와 돈의 상관관계를 논의했다. 그녀는 한국의 근대화 초기에 자유연애사상 강조가 근대 자아의 확립과 관련되며, 염상섭은 식민지 시대 일본 유학생들이 공유했던 개성준중의 방편으로서 자유연애를 날카롭게 포착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의 자유연애에 돈이 개입함으로써

이들이 지고지순하다고 믿었던 사랑까지도 교환가치의 논리에 휘말리고 있다고 보았다.(최혜실 1993:165-170)

이종영은 부르주아 사회를 분석하면서 부르주아 ‘공동체’란 완전한 허구라고 주장한다. 부르주아적 기준에 따를 때, 기회 또는 성공이 완전히 거부된 자는 경쟁에서 자동으로 제거된다. 사회적 삶 자체가 경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르주아 사회는 경쟁에서 이긴 자들만의 사회이다.(이종영 2002:103)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본다면, ‘사회’가 경쟁에 근거해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그러한 사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쟁에 기초한 사회는 오로지 개인만이 존재한다.(이종영 2002:41)

돈에 대한 숭배의 양상은 염상섭 소설의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돈을 획득하려는 욕망은 가족간의 분열을 초래하고, 이 분열은 질투와 미움의 감정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딸이 어머니를(『사랑과 죄』), 어머니가 딸을(『광분』), 아내가 남편을(『삼대』), 남편이 아내(『이심』)를 직·간접적으로 살해하는 비극이 발생된다. 염상섭의 중기 소설에는 가족간의 살인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를 ‘가족살해 모티프’로 규정하고, 이 모티프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추적하고자 한다. 또한 이 모티프는 탐정서사를 성립시킨다. 탐정서사는 신문소설의 대중적인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다. 신문소설은 독자들의 긴장과 호기심을 끌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플롯이다. 독자들은 탐정 서사를 통해 누가 범인인가를 추리하게 되고, 호기심을 가지고, 다음 회를 기대한다. 그것은 곧 신문 판매 부수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염상섭 소설에서 반복되는 탐정서사 또는 ‘가족 살해 모티프’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것이며, 동시에 돈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 기초한 화폐 경제구조의 특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화폐 경제 구조에서 개인이 공동체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서사 분석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 2. 화폐 경제구조와 연애의 삼각관계

염상섭 소설에서 연애의 삼각구도는 자본주의 사회의 내적 논리인 경쟁을 형상화한 것이다. 봉건사회에서 결혼은 부모들의 이해관계를 따라 정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제 결혼은 개인의 의지로 결정된다. 『사랑과 죄』(1928)에서는 내면성이 빈곤하여 타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부정적 인물과 이와 반대로 타자를 인정하는 긍정적 인물이 등장한다. 전자는 내면적 빈곤으로 인해 사랑을 쟁취하는 데 실패하고, 후자는 경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결혼의 조건에 있어서는 여전히 가족적 배경과 경제적 여건 등이 문제가 되지만, 연애에 있어서는 한 남자나 여자를 사이에 두고 경쟁하여 승리하는 쪽이 이성을 얻게 된다. 연애에 있어서 경쟁의 구도는 염상섭 소설의 특성으로 정착되는데, 이는 이광수의 『무정』(1917)과 비교할 때 더 명확하게 그 성격이 드러난다. 이광수 소설이 연애담론을 계몽의 구조로 연결시켰다면, 염상섭 소설은 이를 돈과 연결시킴으로써 현실적인 인간관계에 더 친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랑과 죄』(1928)에서 복잡한 연애의 삼각관계가 등장하며, 주인공 남녀가 다양한 장애들을 극복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는 과정은 고대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혼사장애 모티프를 차용한 것이다.(최혜실 1992)<sup>1)</sup> 최초의 근대소설로 알려진 『무정』(1917)에서도 삼각관계가 서사의 주요 축을 형성한다. 이형식은 김장로의 딸에게 영어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형을 만난 후, 사랑의 감정에 휩싸여 어쩔 줄을 모르다가 뜻밖에 어렸을 적의 동무이자 옛 은사인 박진사의 딸이 기생이 되어 방문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옛적의 은혜를 갚고, 은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박영채와 결혼할 것을 다짐하지만, 영채는 경성 학교 교주의 아들 김현수에게 겁탈을 당하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기 위해 평양으로 떠난다.

여기서 염상섭 소설에서 등장하는 연애 서사와 결정적인 단절이 발생한다. 『무정』의 삼각구도는 경쟁의 구도가 아니라 서사의 진행에 따라 한쪽이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것이다. 이형식이 김선형과 미국 유학길에 올랐을 때, 김병옥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된 영채도 유학길에 올라 형식이 탄 기차에 오른다. 이들이 삼랑진 수해에서 만나게 됨으로써 이들의 개인적인 연애감정은 민족적인 차원의 계몽정신으로 승화되고 만다. 이 장면에서 개인의 연애감정은 공동체의 운명에 뒤따르는 부차적인 것으로 다뤄진다.

이에 비하면 염상섭 소설은 남녀 주인공들 간의 연애감정을 깊이 있게 친착한 본격적인 연애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과 죄』에서 연애관계는 삼각구도의 경쟁적 관계를 보여준다. 서영채에 따르면 이 연애관계는 넓은 의미에서는 삼각관계로 보이겠지만, “좁은 의미의 삼각관계, 두 개의 대상 앞에서 갈등하는 주체의 심리로서의 삼각관계라면, 염상섭 소설에서는 단 하나의 삼각관계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염상섭 소설은 엄밀한 의미에서 삼각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서영채 2004:193) 이 주장은 염상섭 소설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내면적 성격을 간과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염상섭 소설의 근대성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또한 염상섭 장편소설에서 연애의 삼각관계는 서사의 축을 형성할 뿐 아니라 주인공의 내면에 갈등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너희는 무엇을 어뎠느냐』에서 다양한 삼각관계가 실험된 이후로 염상섭 장편의 대부분의 서사는 남녀 주인공을 다양한 삼각관계의 구

1) 최혜실은 염상섭 소설의 통속적 성격을 동일 모티프의 반복과 등장인물과 독자간의 심리적 거리의 붕괴를 근거로 들고 있다.

도에 놓고 있다. 『사랑과 죄』에서 이해춘을 사이에 두고 지순영과 정마리아가 벌이는 갈등이나, 『광분』에서 주정방을 사이에 두고 계모 숙정리와 민경옥이 경쟁하는 것, 『무화과』에서 이원영이 삼남매를 둔 유부남이면서 여러 여성 인물에게 연정을 느끼다가 과거에 조부가 맺어준 기생 채련이가 되어 나타나자, 첩으로 맞아들이는 등의 복잡한 연애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방 후에 창작된 『효풍』(1948)의 삼각관계는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남과 북 사이에 갈등하는 주인공의 내면을 형상화하기도 한다. 『취우』(1953)에서는 약혼자는 한강을 건너 피난한 사이에 미혼남과 이혼녀간의 사랑이 무르익어 가는 과정을 주요 서사로 하면서 주인공의 내면에서 두 여자를 놓고 갈등하는 삼각구도를 보이고 있다. 연애관계에 있어서 남녀 주인공의 관계는 환경이나 다른 인물들의 개입으로 인해 불안한 상태를 지속하면서 서사를 지연시키는데, 이때 서사를 지연시키는 것들은 외부적인 여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인공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갈등이라는 점에서 플롯의 핵심이다. 이와 같이 염상섭 소설에서 삼각관계는 서사의 기본 틀을 형성하면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염상섭 소설에서 경쟁의 구도는 연애관계를 특징짓는다. 한 남자나 여성을 놓고 두 명 이상의 동성끼리 경쟁을 하는 체제는 화폐 경제 사회의 특성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들의 내면성은 화폐경제구조에서의 개인들의 내면성과 유사하다. 부르주아 사회의 화폐경제 체제는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인간을 개인으로 고립화시키면서 화폐 경제구조를 만들어 낸다. 짐멜의 주장에 따르면, 화폐에 의해 사람들은 인격적인 자유 및 고유 영역을 포기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과 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관심이 화폐로 집중되고 재산이 화폐로 구성되는 한, 개인은 자신이 사회 전체에 대하여 독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감정과 경향을 갖게 되며, 사회에 대하여 하나의 독립된 힘으로 존재한다.(Simmel, G. 1983:432) 개인은 이제 사회와 독립된 개체로서의 의미가 강해진 것이다. 그러나 화폐경제는 결코 긍정적인 의미의 개인을 생산하지 못한다. 이제 개인은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타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개인들은 화폐를 얻는데 인생을 허비함으로써 공허한 개인성을 가지기 쉬운 것이다.(Simmel, G. 1983:77)

본격적인 연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립적인 개인이 전제된다는 점에서도 이 연애구도는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자유연애의 핵심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며, 모든 행위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해 나가는 자율적 인간에 대한 갈망이다.(김미영 2003:99) 봉건 사회에서 결혼은 집안간의 관계맺음이었고, 개인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었음에 비해, 이제는 개인들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여 결혼의 상대를 고르고 그를 쟁취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게 된다. 이 경쟁의 구도는 심리 묘사를 통해 세밀하게 탐색된다. 『사랑과 죄』의 전반부에서 이해춘의 작업실을 방문한 정마리아와 지순영 사이의 심리적 긴장 상태는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말에 순영이는 귀가 반짝 쬐는 듯하였다. 해춘이와 마리아의 사이를 좀 수상쩍게 생각하지 안했든 것도 아니었으나 이 말 한 마디를 듣고는 일종의 승리감(勝利感)을 깨다랐다. 모델 노릇 하는 것이 마리아의 말과 가치 그다지도 불명예스럽고 더러운 계집이나 할 노릇 이라손 치드라도 요사이에 와서는 해춘이에게 대한 순영이의 의향이 점점 처음과 달라 가는 것을 제 속으로도 깨닫는 터이라 자기가 경모(敬慕)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슨 부조가 된다는 것을 겁브고 달게 생각하는 바인즉 남이야 놀리거나 흉을 보거나 헤아릴 배 아니었던 하물며 해춘이가 자기와 한 약조를 직히느라고 마리아에게 그것 숨여대이고 자기를 어대까지던 지 두둔하고 싸아 주랴는 눈치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고마웁지 안할 수 업섯다.(염상섭 전집

(이하 전집) 2권, p.30)

이해춘은 지순영을 모델로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중이었지만, 정마리아가 요즘은 어떤 그림을 그리는 중이냐고 묻자, 풍경화를 그리고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지순영이 초상화의 모델로서 불려 다니는 ‘더러운 계집’은 아니라고 변명하여 준 것이다. 여기서 지순영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이해춘의 자신에 대한 감정을 확인함으로써 ‘일종의 승리감’을 깨닫는 것이다. 이 승리감은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이긴 자의 것이다.

그런데 경쟁은 한번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장소가 바뀌고, 인물이 교체되면서 이들의 경쟁은 복잡하게 전개된다. 사업가인 류택수는 자신의 부를 내세워 지순영을 유혹하고, 지순영의 모친과 오빠는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낼 궁리를 한다. 지순영은 가족들이 자기의 처지를 이해하고 돌봐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모습에 환멸과 적막감을 느끼고 죽음을 생각하기에 이른다. 근대사회에서는 가족이 해체되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문제된다. 가족이라는 최소의 공동체도 자본주의적 구조에서는 해체되는 운명에 놓인다.

“이 넓은 텃디에는 잠시 한 켠 잠 한 켠 편히 잘 곳조차 업드란 말인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하니 제 신상이언만은 측은하야 보여서 공연이 눈물이 습일 듯 하였  
다. 별안간 세상이 다--신평영스럽고 비지땀을 흘리며 분주히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조차 무  
슨 까닭에 저러케도 악착 모지게 살라는구? 심혔다.(『전집 2권』, 『사랑과 죄』, p.92)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잠을 자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던 순영은 류택수와 혼인을 하라는 “오래비 등살에 쫓겨 나오듯이” 집을 나와, 갈 곳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가족들조차도 자신을 이용하려드는 것에 대해 환멸과 고립감을 느낀다. 이에 비해 정마리아는 이해춘이 지순영의 약혼한다는 소문을 듣고 혼란에 빠진 틈을 이용하여 이해춘과 하룻밤을 보내고, 승전가를 부르는 격으로 단발머리를 하고 이해춘의 작업실에 나타난다.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들은 경쟁을 위한 무기로서 패션과 육체를 사용한다.

머리뿐만이 아니다. 들어올 때부터도 눈여겨 본 것이지만 상큼한 코스탈 우에는 원산과 귀거리를 금으로 한 압브장스러운 안경이 걸려있다..... 해춘이는 또 한 번 실소하였다. 그러나 **결코 결코** 입버 보이지 안흔 것은 아니었다. 노르스름한 팔 업는 양복도 몸에 턱 어울리게 입매가 잇거니와 시원스럽게 내어노흔 백설 가튼 팔목에는 금시계줄이 팔깍지 대신으로 휘감기었다. 풋대초만한 ‘에메랄드’가 어른거리는 손에는 오페라 · 썩쓰가 하늘거린다.(강조-인용자 전집 2권 p.224 )

봉건사회에서는 의복이 신분이나 계급을 표시하는 것이었으나, 신분제도가 폐지되고 나서는 패션이 개인을 표현하는 기표가 된 것이다. 전통적인 한복의 특징이 개별 여성의 육체의 선을 지우고 대신 미리 주어진 의복 자체의 선을 드러내는 데 반해, 서양식의 복장은 개별 여성의 육체의 선을 따른다. 근대 사회에서 의복은 본질적으로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으므로, 먼저 착용자의 개별적 자아에 호소한다.(김미영 2003:128) 신여성들은 해외유학과 일본유학을 통해 패션의 의미를 체화하였으며, 패션과 육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다. 정마리아의 단발머리와 패션, 화려한 장신구를 보는 이해춘의 시선은 이중적이다. 자신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승리가 자기 것인 양 당당하게 등장한 정마리아의 태도에 실소하면서도 그녀의 화려한 외양까지 무시할 수 없었다. 정마리아

는 패션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뿐 아니라, 지순영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것을 자축하고 있다.

그러나 정마리아의 승리의 행진은 오래가지 못한다. 지순영에 대한 이해춘의 오해가 풀리면서 정마리아는 지순영과의 경쟁에서 지고 만다. 그녀는 이해춘이 그린 지순영의 초상화를 보고 이 경쟁에서 패배한 것을 알게 되고, 지순영을 음해하기 위해 지순영의 생모인 해주집을 살해한다. 이 살인 사건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화폐경제 사회의 파괴적인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 3. 교사된 살인과 속물적 근대성 비판

근대 사회가 사회나 공동체보다 개성과 개인을 우선적인 가치로 뒀으므로 공동체는 권위가 실추되거나 존재 자체가 붕괴할 운명에 놓이게 된다. 1930년대를 전후로 하는 염상섭의 장편소설들은 가족중심의 서사로 틀을 잡아간다. 『사랑과 죄』에서 지순영의 가족이 가족 서사의 단초를 마련하였고, 『광분』에서 조선의 부호인 민병천 가족이 서사의 중심에 놓이면서 가족 서사의 틀을 마련하였다면, 『삼대』와 『무화과』는 한 가족을 중심으로 시대상을 재현하는데 성공하기에 이른다.(김경수 1996:517)<sup>2)</sup>

『광분』에서 조선의 사업가인 민병천이 몰락하게 된 원인은 화자(話者)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된다. 민병천은 계속되는 사업의 실패로 인해 토지가 ‘식은(殖銀)’에 넘어가고 회사의 현금도 바닥이 난다. 이렇게 된 데에는 민병천의 회사에서 제조된 제품보다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수했기 때문이다.(염상섭 1996:367-368)<sup>3)</sup> 민병천의 파산은 시대적인 필연성이며, “정치·경제 양면에서 점차 공고화되어가던 일제의 식민 수탈 정치”(김경수 1996:512)에 의한 것임을 폭로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인간이 한 인간이기에 앞서 가족의 일원임이 요구되었고 가족의 원리가 가족 내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외부까지 확대”된다는 주장에 근거해,(이광규 1981:15) 염상섭 소설의 근본적인 정신구조를 ‘가족주의’(김승환 1987:93)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염상섭 장편소설이 가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들의 해체 과정을 추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조선의 중산층의 몰락이 곧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이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대가족 제도의 해체는 시대적인 대세라는 점에서 자본제적 사회구조가 강제한 것이다.

염상섭 소설을 가족주의적 시각으로 고찰한 논의들은 대가족 제도나 가족의 붕괴에 있어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원인들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화폐 경제구조가 가지는 속성에 의한 것이고, 이 속성에 의해 공동체는 해체되고 개인들 간의 화폐획득을 위한 무한경쟁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광분』에서 가족의 해체과정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민병천 일가가 해체된 근본적인 이유는 협잡꾼인 변원량이 민병천의 부인인 숙정을 충동질하여 경옥이를

2) 김경수는 『광분』을 사회의 축도로서의 가정을 염상섭 소설의 주된 서사공간으로 채택한 『삼대』, 『무화과』로 나아가는 과정에 놓인 작품으로 규정하면서 가족 서사가 염상섭 소설의 핵심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3) “그러나 그것은 하여간에 일이 이렇게 된 근본이 어디 있었나? 자기 회사에서 경영하는 두 가지 사업, 즉 고무신 공장과 비단 짜는 공장이 도저히 조선 사람의 손으로 지탱하여 나가지 못하는 큰 원인이 어디 있는나는 것은 연구해보려고도 아니하였다.(중략) 병천이 회사의 고무신이 조선 사람 중에서는 가장 큰 공장에서 가장 튼튼히 지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회사에서 일본 사람의 손으로 지어내는 고무신은 그 품질이 약하기는 하지만 값이 싸다.”

살해한 것이다. 살인 사건으로 인해 이 소설은 탐정소설의 서사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토도로프는 범죄와 조사과정의 성격에 따라 탐정 소설을 추리소설, 스릴러물, 서스펜스로 분류하고 있다.(T. 토도로프 1992:50-58)<sup>4)</sup> 이미 살인이 벌어지고 나서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과정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엄상섭 소설은 추리소설의 성격을 띤다. 이것은 결과에서 원인으로 나아가는 형식이며, 이렇게 역진적인 구성은 범인이 잠정적으로 드러난 상태이므로 어떻게 범인을 붙잡는가가 중요해진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질투하고 미워하며 살인에 이르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정방을 사이에 놓고 경쟁하던 계모 숙정이 딸과의 경쟁에서 패한 뒤에, 의붓딸인 경옥이 자기의 지위를 박탈하고자 하는 음모를 펼치고 있다고 믿는 데서 나온 불안과 초조의 결과였다. 여기에 딸을 살해함으로써 더 많은 화폐를 획득할 수 있다는 그녀의 기대도 한몫하였다. 가족의 구성원들 사이에 살인은 『사랑과 죄』에서 이미 등장한 바 있었으나<sup>5)</sup>, 『광분』에서는 그것이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계모인 숙정이 변원량을 사주하여 일어난 살인의 전말은 열쇠와 편지, 경옥이가 지니고 있던 가방이 발견되면서 밝혀지게 되고, 그로 인해 민병천 일가는 모친이 딸을 살해한 가문으로 낙인찍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근대적 화폐 경제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이런 사회 체제가 강제하는 경쟁과 갈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근대 경제 체제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것이다.

『이심』에서는 가정 내의 가부장적 질서를 비판하고 있다. 가부장적 질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봉건사회의 잔재이지만, 그것은 근대사회에서도 문제적임을 보여준다. 부르주아 가정 내에서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한 때 사회주의자였던 이창호는 아내 박춘경의 부정한 과거를 알게 된 후, 춘경을 강제적으로 유곽에 팔아버림으로써 자살을 유도한다. 춘경의 자살은 남편의 강압적 폭력에 의해 일어난 것이므로 교사된 살인에 해당한다.

『이심』은 주변의 오해와 소문에 의해 원래의 가족에서 강제적으로 떨어져 나온 남녀가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파멸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학생 시절 테니스 레슨을 통해 알게 된 이창호와 박춘경은 창호가 수업시간에 무심코 쓴 낙서가 발각되어 자유연애를 하는 학생으로 소문이 난다. 이 소문으로 인해 부모와 학교로부터 고립된 춘경은 이창호를 찾아가 결혼생활을 시작한다. 이들의 축복받지 못한 결혼은 이들을 가난과 굶주림으로 몰고 갔고, 결국 춘경은 일본인 호텔 지배인인 좌야생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꾸려간다. 이에 비해 창호는 한 때 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감옥을 다녀온 뒤로는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면서도, 아내의 과거를 알고 나서는 가장으로서의 권위에 손상을 입었다고 느낀다. 그는 아내의 심부름으로 좌야생에게 돈을 얻으러 갔다가 좌야생의 편지를 읽고 아내의 부정을 알게 된다. 그는 아내에 대한 분노로 받은 돈을 거지에게 던졌다가 경찰서에 붙잡혀 갔고, 그곳으로 찾아온 좌야생에게 잉크병을 던지고 구치소에 수감된다. 그는 아내의 면회를 거절하고, 아들을 아내에게서 빼앗아 지인에게 맡기는 등 아내에 대한 분노를 지속적으로 표현한다. 이 소설은 역전된 부부의 성역할을 보여주면서 가부장제 질서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으나, 여전히 남녀의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근대사회의 가족제도에서

4) 범죄 사건이 억압되고, 조사 과정만이 서술되는 경우는 추리소설이고, 범죄가 준비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스릴러물에 해당하며, 이 두가지가 결합된 형태가 서스펜스에 해당한다.

5) 『사랑과 죄』의 정마리아는 이해춘을 사이에 두고 지순영과 경쟁하다가 자신의 패배를 눈치 채고, 지순영을 음해하기 위해 그녀의 생모인 해주댁을 살해한다. 이는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등장하는 근친 살해 모티프에서 영향을 받은 듯 하다.

남편은 아내의 지배자이자, 유일한 권력자라는 불평등한 부부관계를 보여준다.

박춘경의 삶에 대해서 작가는 다분히 남성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이 사실이다. 서술자는 박춘경의 행동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를 벗어나서 자신의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주관성을 개입시킨다.(이정옥 1996:238) 박춘경을 가부장적 질서의 희생자로 보기보다는 근대 사회의 물질성에 휘둘리는 속물적 여성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는 신여성들에 대한 작가의 혐오적인 태도와 관련된다. 초기 삼부작 중 하나인 『제야』의 최정인과 『사랑과 죄』의 정마리아와 같은 인물들은 근대적 개인의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 자유연애를 추구하지만, 경제적인 기반의 취약성과 가부장적 질서에 의해 파멸하는 여성들이다. 이런 여성들의 연장선상에 박춘경이 놓여 있다. 그녀는 자녀들을 부양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억척스런 여성이면서 동시에 근대 사회의 속물성을 체현한 여성이기도 하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서는 아내로서의 정조를 파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좌야생이 자신을 미끼로 미국인 커닝햄의 돈을 갈취하려는 음모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다.

『이심』의 박춘경의 몰락과 죽음은 자유 결혼이 내포하고 있는 여성 주체의 불평등한 위치를 확인시켜 준다. 결혼 전에는 가부장적 질서에 억압당하고, 결혼 후에는 가장의 폭력 또는 ‘아내 또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자유를 빼앗기고 만다. 여기서 개인의 자발성이란 환상이 되고, 현실은 여성에게 권위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여, 이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생명을 내놓을 것이 요구된다. 부르주아 핵가족의 성격은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적이라는 사실에 토대한다. 두 인간이 대등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을 공적인 규제 없이 ‘자기 마음대로’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부르주아 핵가족은 ‘사적(私的)’ 공간의 성격을 지닌다.(이종영 2002:108) 부르주아 사회의 남성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담당자이자 부르주아적 지배 양식의 주체이다. 그들은 부르주아 사회의 구성원리인 경쟁을 자기화하고 다른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경쟁을 치르는 전사이다. 가정에서 남자는 여자를 제압해 놓고, 자기들끼리 전쟁을 벌인다.(이종영 2002:110) 이와 같은 논의에 기대어 볼 때, 가부장적 질서에서는 남편이 첩을 들이고, 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공동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돌리는 것이 정당화된다. 이창호는 춘경이 남편의 통제를 벗어나 정조를 팔고 자유로운 주체로 살아가려는 것을 참지 못함으로써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그녀는 남성에게 제압되지 않은 ‘여성적 주체’이므로 부르주아 가정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인 호텔 지배인 좌야생은 박춘경을 미국인 커닝햄에게 소개시켜주고, 거짓 편지를 작성하여 미국인에게 돈을 뜯어내는데 성공한다. 이들에게 타자의 존재, 특히 여성들의 미모는 화폐 획득을 위한 도구이다. 인간은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칸트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염상섭 소설의 현실이자, 근대 화폐경제의 현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화폐를 획득하는 것으로 보상하려 한다. 그것은 사기나 거짓말, 공갈이나 위협 등 비양심적이거나 비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이종영 2002:81) “그들은 충동적으로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는 것을 원칙을 삼”고 있다.(Adorno, T.W. 1995:36)

이들의 사기행각은 자본주의 사회의 마케팅과 유사하다. 상품을 가진 자는 화폐를 가진 자로부터 화폐를 빼앗기 위해 온갖 전략을 다 꾸민다. 그것이 마케팅이다. 구매자들은 기만적인 마케팅에 따라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산다는 점에서 사기를 당하는 것이며, 판매자가 구매자를 단지 화폐획득의 수단으로 이용하다는 것도 일종의 기만인 것이다.(이종영 2002:81-82) 그러므로 『무화과』의 김홍근과 『이심』의 좌야생은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 판매 방식을 보여준다. 이들은 화폐 경제구조의 실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



에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이들은 주인공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성취한다. 이들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려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순간, 자본제적 질서의 속물적 특성이 드러난다. 작가는 속물적 인물들의 성공을 통해 화폐 경제 구조를 비판적 시선으로 재현한다. 그러나 염상섭 중기 소설에서 돈을 쫓는 인물들이 부정적으로 그려지다가 후기에 이르면 돈에 의해 연애관계가 좌우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일제하의 근대적 경제 질서가 공고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최혜실 1993:182-184)

#### 4. 독살 사건과 대가족 제도의 붕괴

전근대적 가치는 명분이나 이념이 인간의 생명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근대적인 가치에서는 인간의 생명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다. 칸트의 실천윤리에서는 이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 인간의 존재 자체는 그것 자체로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 자체는 교환가치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폐 경제구조에서는 인간도 화폐 획득을 위한 도구가 된다. 화폐 획득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경쟁할 뿐 아니라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죽이는 것도 마다않는 것이 염상섭의 중기 소설이 보여주는 현실이다.

근대의 중산층들은 화폐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한다. 이들은 중산층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고 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닌다. 그러한 두려움은 중산층으로서 누리는 정체성과 생활양식의 향유를 잃게 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결국 중산층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중산층으로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광분』의 민병진, 『삼대』의 조상훈, 『무화과』의 이원영의 내면에는 화폐 획득의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는 강한 열망들이 내재하고 있다. 이처럼 ‘부르주아로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내면성의 구조를 결정한다.(이종영 2002:36) 그러나 이들은 일제의 식민지 수탈 구조에 의해 운명적으로 몰락하게 되어 있다.

돈을 획득하려는 경쟁에 개입하는 중재자들은 개인들의 경쟁을 중재하는 국가나 경찰을 상징한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부르주아의 내면성을 드러내거나 돈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내면의 추악한 모습을 추적한다. 중기 장편소설에 등장하는 탐정형 인물들, 예를 들어 『삼대』의 조덕기는 전체 서사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중재자로 볼 수 있다. 『무화과』의 박종엽, 『백구』의 조종호, 『목단꽃 필 때』의 이원석 등은 사건의 전말을 독자에게 알려주는 정보의 전달과 함께 소설 내에서는 개인들 간의 욕망이 서로 합의점을 찾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타자들을 공동체적 사고를 판단하지 않고, 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긍정적 의미에서 ‘자립적 개인’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들은 초점화자 중심의 서술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설 새 없이 공간을 이동한다.

『삼대』에서는 조의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서(조)모인 수원택과 부친 조상훈이 동분 서주하며 계략과 음모를 펼치게 된다. 여기서도 가족살해 모티프는 조의관의 죽음으로 변주된다. 만약 수원택과 매당집의 음모로 조의관이 살해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면, 조덕기 일가도 붕괴되었을 것이다. 조덕기 일가의 몰락이 『무화과』까지 지연될 수 있었던 까닭은 조덕기의 역할이 컸다. 그가 가족들 간의 음모와 살인을 침묵한 데에는 그의 가족주의적 정신구조 때문이다.(김승환 1987:92) 그는 부친인 조상훈이 방치한 흥경애 가족을 돌보고, 주의자인 김병화를 돕다가 경찰서에 들어간 사이에 조상훈이 찾아와 돈을 가져간 것

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았고, 마침내 조의관의 재산을 노리고 독살을 시도한 수원집의 살인마저도 눈을 감아버린다.

의사는 이해(理解) 못하는 가족들이 수술을 잘못하였다고 칭원할까 보아 비소 중독을 앞장 세우고 또 누구나 의사의 말을 믿었으나, 그 정통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는 점에 이르러서는 의사가 말 못하는 거와는 딴 의미로 아무도 개구를 못하였다. 의사는 다만 의학상 과학적 문제로만 생각하나, 친근한 여러 사람은 법률 문제--형사 문제로밖에 아니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누구나 입을 봉하였다.

의사가 연구 재료로 해부를 해 보아도 좋을 듯이 말을 끄낼 제 맨 먼저 찬동의 뜻을 표시한 사람은 상제인 상훈이었다. 덕기는 실상은 그렇게 하자고 하고 싶었으나 일가의 시비가 무서워 대담히 입을 벌리지는 못하였다.(『전집』 4권, P.279)

조덕기의 이러한 태도를 두고 민족적인 분열을 극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적극적인 평가도 있다.(김병익 2005) 그러나 조덕기는 조부의 독살로 인해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공권력에 의해 드러남으로써 가문의 명예에 손상이 갈까 두려웠던 것이다.<sup>6)</sup> 이는 조덕기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조덕기는 철저히 가족중심적인 사고의 소유자이고, 그가 조부 독살사건을 은폐한 것은 대가족 체제를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방어이다.

그러나 조덕기 가문의 대가족 제도는 이미 붕괴의 과정을 겪고 있다. 조부가 남긴 재산 중 방앗간의 소유가 분명치 않아서 부친인 조상훈과 아들인 조덕기 사이에 불화의 불씨가 남아 있는데다가 부친은 생활이 궁핍해지면 언제든지 아들의 재산을 가로챌 기회를 엿보고 있다. 조상훈의 행동은 화폐의 위력을 알게 된 중산층들의 불안과 초조를 보여준다. 돈은 부르주아에게 노동자 계급으로 몰락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막아주고 '부르주아로서 살아남는 것'을 보장한다. 그에게 형제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하는 가족간의 인륜보다 화폐는 높은 가치를 점유한다.(이종영 2002:76)

『무화과』는 『삼대』에 이어지는 속편이자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으로써 염상섭 장편소설 중 가장 길다. 이 소설에는 『삼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대로 다시 등장하고 있고, 이원영이 신문사 사업에 손대면서 신문사에 관계된 인물들이 다수 추가된다. 이 소설에서는 살인 사건은 등장하지 않지만, 『삼대』에서 지탱되던 대가족 제도는 이 소설에 이르러 파탄을 맞이한다.

출가했던 이문경은 시댁의 파산을 막아달라며 돈을 요구하여 친정으로 쫓겨나고, 이원영은 부친과의 재산다툼으로 인해 세인들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신문사에 투자하게 된다. 신문사에 투자한 동기로만 볼 때, 이원영은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모면하려는 명분에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김홍근과 이탁 일파는 이원영이 사회주의자인 김동국의 활동자금을 댄 이유로 경찰에 잡혀 간 사이에 삼 만 원을 투자하고 이원영이가 차지하고 있던 영업국장 자리를 빼앗게 된다. 이원영이 잡혀간 틈을 이용해 부친이 찾아와 문경이의 통장을 가져가게 되고, 이를 말리려던 모친은 자식 걱정과 남편에 대한 분노가 겹쳐지면서 화병으로 죽고 만다. 이렇게 되어 아버지가 있으면서도 권위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이원영의 대가족은 붕괴되고,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방식으로

6) 이는 『삼대』의 후속편인 『무화과』에서 주인공 이원영이 아버지와의 재산다툼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신문사를 운영해보려는 것에서 그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드러난다. 그는 합리적 이성이나 이해관계보다는 체면과 도덕, 윤리가 우선이다.

부르주아적 핵가족의 형태로 재편된다.

또한 이원영의 여동생 이문경은 파산 직전의 시댁에서 돈을 해오라는 명령을 받고, 해고된 신문기자 김봉익에게 연정을 품게 된다. 이 사실이 동경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남편에게 전해지고, 이들은 급격하게 사이가 나빠진다. 이문경의 남편 한인호는 아내를 이용하여 자기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아내의 친구와 불륜을 맺고서도 죄의식이 없는 인물이다. 그는 부르주아 사회의 핵가족을 이끄는 가장의 부정적인 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문경은 신문사 여기자 박종엽과 함께 김봉익을 찾아갔다가 아이를 유산하게 되고, 남편은 이를 일부러 낙태한 것이라고 헐뜯하여 이들 부부는 이혼의 과정을 밟게 된다. 『이심』의 박춘경이 남편의 오해를 받아 임신한 아이를 유산하고, 큰 아이까지 잃게 된 후에 남편의 계략에 의해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유사한 서사를 여기서도 반복하고 있다. 자본제적 경제 구조에서는 핵가족도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다.

염상섭 소설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전개된 서사는 가족 공동체의 해체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인 성격을 띤다. 『삼대』에서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조덕기의 노력은 『무화과』에서 더욱 더 많은 화폐를 획득해야 하는 화폐 경제구조의 원리를 따르지 못함으로써 조덕기의 후신인 이원영은 몰락에 이르고 만다. 그러므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는 사회의 축소판으로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식민지적 공동체의 운명을 보여준다. 또한 화폐 경제구조를 기본 틀로 하는 자본제적 체제는 개인을 공동체에서 고립시키면서, 가족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가족 서사의 역설적인 면을 발견하게 된다. 염상섭 소설을 통해, 가족이야말로 사회의 기본 단위이면서 사회를 존속시키는 최소 단위이지만, 그것조차도 근대적 화폐 경제 속에서는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 5. 결론

1930년대를 전후로 하여 염상섭은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장편소설들을 발표한다. 『사랑과 죄』(1928)를 비롯하여 『삼대』(1931), 『무화과』(1932)는 기존의 연구에서 자주 거론되는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의 기본 서사는 남녀간의 연애를 위주로 전개된다. 이광수의 『무정』(1917)에서도 삼각관계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개성의 자각을 통한 자발적인 경쟁이 아니라는 점에서 염상섭 소설의 삼각관계와 차이를 보인다. 염상섭 소설에서 등장하는 신여성들은 자유연애를 개성의 자각과 연결시켰고, 이를 통해 자율적 인간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연애는 한 대상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어서, 근대사회에서 돈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개인들의 특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들은 사랑하는 대상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결과로 『사랑과 죄』에서는 인간의 목숨까지도 빼앗으려는 극단적인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염상섭 소설은 가족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삼대』는 가족사 소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염상섭 소설의 가족주의적 성격은 화폐 경제구조에서 공동체가 존립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산층들은 화폐 경제구조에 따라 더 많은 화폐를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고, 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돈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고, 갈등하게 되면서, 결국은 딸이 어머니를 죽이거나(『사랑과 죄』), 남편이 아내의 살인을 방

조하거나(『이십』), 어머니가 딸을 교사하거나(『광분』), 아내가 남편을 독살(『삼대』)하는 사건이 발생된다. 염상섭 중기소설에는 이와 같은 ‘가족 살해 모티프’가 반복하여 나타난다. 돈을 획득하고자 하는 가족들 간의 경쟁은 살인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대가족으로 구성된 봉건적인 가족제도는 해체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또한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도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는 성격으로 인해, 남편들은 아내들의 가정 내의 권력을 용납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자율적이고 개성적인 삶을 살려는 『이십』의 박춘경은 자녀들을 잃고 남편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무화과』의 이문경은 임신한 아이를 유산한 뒤에 남편과 이혼함으로써 핵가족도 해체된다. 그러므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염상섭 소설은 사회의 축소판으로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식민지적 공동체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의 서사는 화폐 경제구조를 기본 틀로 하는 자본제적 체제가 개인을 무한한 경쟁에 몰아넣고, 더 많은 화폐를 획득하지 않으면 몰락하게 되는 중산층 부르주아들의 운명을 보여준다. 화폐경제 사회에서 개인은 사회와 타자로부터 고립되고, 결국 가족 공동체도 해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겠다.

K C I

<<참고문헌>>

<기본자료>

염상섭(1987) 『염상섭 전집』 2권, 3권, 4권, 5권, 민음사.

염상섭(1996), 『광분』, 프레스21.

염상섭(1997), 『무화과』, 두산동아.

<단행본 및 논문>

김종균(1974), 『염상섭 연구』, 고대출판부.

이광규(1981), 『한국 가족의 구조 분석』, 일지사.

김승환(1983),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가족중심의 인간상 고』, 서울대 석사논문.

유병석(1985), 『염상섭 전반기 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조남현(1987), 「『삼대』의 재해석」, 『한국문학』(3), 380-400

김승환(1987), 「염상섭의 가족주의적 정신과 가(家)의 사상」, 『염상섭문학연구』(권영민 편), 민음사, 서울, 86-96.

김윤식(1989), 『염상섭 연구』, 서울대출판부, 서울.

이보영(1991), 『난세의 문학』, 예지각.

최혜실(1992), 「염상섭 장편소설에 나타난 통속성 연구」, 국어국문학 108집(12), 209-224

조혜정(1993),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서울.

김윤식·정호웅(1993), 『한국소설사』, 예하.

최혜실(1993), 「염상섭 소설에 나타나는 근대성-돈과 애정의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서울사대 산청어문』(9), 163-185.

김경수(1996), 「염상섭 소설의 전개과정과 『광분』」, 『광분』(염상섭), 프레스21, 496-523.

이정옥(1996), 「권위적 서술과 여성인물의 형상화」, 『현대소설 시점의 시학』(한국소설학회 편), 새문사, 235-248.

김경수(1999),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일조각.

김미지(2001), 『1920-30년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연애’의 의미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이종영(2002), 『내면성의 형식들』, 새물결.

김미영(2003), 『1920년대 여성담론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이보영(2003), 『염상섭 문학론』, 금문서적.

서영채(2004), 『사랑의 문법』, 민음사, 서울.

김병익(2005), 『그래도 문학이 있어야 할 이유』, 문학과지성사, 서울.

Simmel, G. (1983), 『돈의 철학』(안준섭 외 역), 한길사.

Adorno, T.W.(1995), 『한줌의 도덕』(최운규 역), 솔.

<abstract>

The family killing motif and The collapse of family communities  
-focus on Yeum Sang-seup's novel in the 1930's

Kim Hak-kyun

This study search for the meaning of the family killing motif which is repeated in the Yeum Sang-seup's 1930's novel. During the year of 1930's Yeum Sang-seup wrote 『Love and sin』 (1928), 『Two minds』 (1929), 『Furious anger』 (1930), 『Three generations』 (1931), 『The fig tree』 (1932) which are his famous works. The main narrative of these works is the making a love marriage of hero and heroin. Fundamentally, the love marriage sets the independent individual as a premise, the independent individual has his/her own a decision to select his partner. In the Yeum's novel the New-women struggle to get the partner(the hero), which isn't appeared in the Lee Kwang-su's novel 『Without affection』 (1917) which is famous for the first Korean modern novel.

This struggle to get a partner is similar to the capitalistic economy structure, in which the individuals struggle to get the money by any other methods. Especially the Bourgeois is afraid of failing to maintain his status, so they try to get money as much as he can. If he fails to get money much more, he can't live as a bourgeois. So he must get money more and more, this makes the inner world of the bourgeois who are ready to kill each other for the money.

Kim Seung-whan insist that Yeum's novel is showed the centering on a Family, which gives to hero as Jo Deuk-ki in 『Three generations』 a comfort and a conservative thinking. But we find out that the member of family kills each other to get money because of the capitalistic economy structure. In the capitalistic economy we can't imagine the community as well as family, who struggle to get money as much as possible, or to be defeated in no money. So the daughter kills his mother although she didn't( 『Love and sin』 ) and mother kills his daughter( 『Furious anger』 ) and the wife kills her husband( 『Three generation』 ). The member of family kills each other, the community is collapsed.

Moreover, the nuclear family is also collapsed because the husband try to have only right to rule over his wife and family. The New-woman is to be killed by her husband because she struggles for the structure of the nuclear family.( 『Two mind s』 ) And in the 『A fig tree』 Lee Mun-kyung refuse the suggestion to get money by the esteemed family her husband and find out her husband's immorality. So their nuclear family is collapsed by money and her abortion and her husband's immorality.

Finally, we conclude that Yeum's novel show us the breaking up the expanded

family because of the capitalistic economy structure and the nuclear family is also collapsed because of husband's dictatorship in the bourgeois society.

주제어 : 가족살해 모티프, 화폐 경제구조, 자립적 개인, 가족 공동체, 핵가족

keyword : the family killing motif, capitalistic economy structure, independent individual, family community, nuclear family.

K C I